

광주·전남 7월 대형소매점 판매 하락

광주, 백화점 판매 8.1%, 대형마트 11% 줄어…전국 회복세와 대조
전남, 건설수주액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끝없는 건설경기 침체

광주·전남지역 7월 중 경기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소비산업 중심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의 생산 측면 경기 지표는 소폭 상승하며 회복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와 건설 투자 등 소비와 설비투자 지표는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국 경기 지표가 생산, 소비, 설비투자 등 모든 측면에서 '트리플 증가'로 경기 회복 신호를 보인 것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지난 3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7월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광주시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5.8로 전년 동월(94.7) 대비 9.4% 감소했다.

광주는 정부가 올해 들어 고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물가 안정 대책을 지속하고, 지역민들의 소비심리도 점차 개선되면서 2월(-17.1%), 4월(-8.8%), 6월(-5.5%) 등 하락폭

을 좁혀왔지만, 7월들어 다시 악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문별로 백화점 판매는 8.1% 감소했고, 대형마트는 11.0% 줄었다.

상품군별로는 오락·취미·경기용품(87.6%) 등은 증가한 반면 음·식료품(-7.3%), 화장품(-17.0%), 의복(-13.3%) 등은 감소했다.

건설 역시 대폭 감소했다. 7월 중 광주시 건설수주액은 1435억원으로 전년 동월(2255억원)보다 36.4% 줄었다. 공공부문에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건설 수주가 1년 새 347%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에서 부동산 및 중개업, 기계·장치 등을 중심으로 37.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 역시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와 건설수주액이 모두 감소하는 등 소비 및 설비투자 측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남지역의 7월 중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1.0으로 전년 동월(89.8) 대비 9.8% 감소했다.

상품군별로 신발·가방(5.6%), 오락·취미·경기용품(2.6%) 등의 매출은 늘었지만, 음·식료품(-5.0%), 의복(-27.7%), 가전(-18.6%) 등은 줄었다.

전남지역 건설수주액도 전년 동기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남 7월 건설수주액은 1491억원으로 전년 동월(3252억원) 대비 54.2% 감소했다. 부문별로 공공부문 수주액이 76.9% 줄었고, 부동산임대업·기타 비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은 31.3% 늘었다.

생산 측면에서는 광주와 전남의 희망이 엇갈렸다. 광주는 생산, 출하, 재고 등이 모두 증가했지만, 전남의 생산부문은 감소했다.

광주시 7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130.0으로 전년 동월과 전월 대비 각각 9.0%, 0.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출하는 전기장비(73.1%), 전자·통신(29.6%) 등을 중심으로 2.4% 늘었고, 재고도 2.4%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은 화학제품(-3.6%), 전기·가스업(-9.4%) 등이 감소해 광공업 생산지수는 전년 동월보다 1.1% 감소한 106.0을 기록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10월 10일까지 남도장터 추석 명절 기획전 농·수·축산물 최대 50% 할인에 각종 혜택

1000여개 품목 할인쿠폰 제공

전남 대표 공공형 종합 유통 플랫폼 남도장터가 '남도장터 추석 명절 기획전'을 오는 10월 10일까지 연다.

이번 기획전은 추석을 맞아 ▲한우 선물세트 ▲전통 한과 ▲굴비·감·견어물 ▲사과·배 등 인기 선물세트로 구성된 전남의 우수 농·수·축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기획전에서는 입점업체 210개사가 1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고객 1인당 5매, 최대 25만 원까지 할인되는 쿠폰을 제공한다. 20개 이상 대량 구매 시 한도 제한 없이 10% 할인이 적용되는 대량구매 혜택도 제공한다.

올해는 친환경 꾸러미 세트를 처음으로 도입했고 제수용·구이용 수요를 반영한 실속형 선물도 구성해 보다 간편하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남도장터는 또 ▲로컬상품권 입점지원사업 ▲대한민국 수산대전 ▲도·시군 기획전 등 정부



남도장터 기획전 포스터.

공모 및 지자체 협업사업을 병행하는 한편,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식품 바우처 사용처로 선정된 데 따라 공공 유통 플랫폼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경호 대표이사는 "전남 농어민의 땀과 정성으로 길러낸 먹거리를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한편, 기관·기업의 단체 구매 수요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농어민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중소기업 종사자수 전년비 0.9% 감소…서울 다음 큰폭 줄어

매출액도 1.7% 줄어 전국 최고

전국 17개 시도 중 광주지역 중소기업 종사자가 서울 다음으로 감소 폭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광주지역 중소기업의 매출액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지원책 마련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2023년 광주 중소기업 종사자는 46만 1898명으로 전

년(46만 6106명) 대비 4208명(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남지역 중소기업 종사자는 63만 4098명으로 2.1% 늘었다.

전국적으로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0.9% 늘었지만, 광주만 유독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중소기업 매출액도 편차를 보였다. 광주 소재 중소기업 매출액은 77조 6814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줄었는데,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7%)과 함께 가장 큰 감소액이다. 반면

전남지역 중소기업은 96조 1868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3.3% 상승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본 통계는 중소기업 기본 현황을 작성해 정책 수립·지원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작성 주기는 1년이며 공표 시기는 기준연도 익익년이다. 중기부는 통계청 기업통계등록부를 기반으로 작성 대상(폐업기업 제외 등)을 확정하고, 기업 규모별(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등) 통계를 생산·작성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루이비통의 첫 화장품 '라 보떼 루이 비통' 서울 강남구 루이비통 서울 도산에서 지난 29일 열린 뷰티 컬렉션 출시 관련 팝업스토어를 방문한 고객들이 루이비통 최초의 뷰티 컬렉션 '라 보떼 루이비통'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업 61% “60세이상 근로자 재고용 선택”

기업 10곳 중 6곳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방식과 관련해 '재고용'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년제를 운용 중인 전국 30인 이상 기업 1136개를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기업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많은 61.0%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 방식으로 재고용을 택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재고용이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기존 근로관계 종료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고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경총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60세 이상 고용방식과 관련해선 재고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재고용되는 60세 이상 근로자의 적정 임금과 선정 방식을 묻는 말에는 응답 기업의 50.8%가 '퇴직 전 임금 대비 70~80% 수준'이라고 답했다.

또 재고용되는 60세 이상 근로자는 업무 성과, 경력사유 여부 등을 평가하는 선별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84.9%에 달했다. 반면 희망자 전원을 재고용해야 한다는 응답 기업은 전체의 15.1%에 불과했다.

고령 인력의 지속 가능한 계속 고용을 위해서는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임금 조정과 선별작업이 필수적 요소임을 시사했다고 경총은 전했다.

법정 정년 후 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으로는 '고령 인력 채용 시 세제 혜택 부여(47.7%)'와 '고령 인력 인건비 지원(46.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경총은 고령 근로자에 대한 높은 인건비와 고용 경직성에 대한 부담이 기업의 인력 활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이자 장사’ 지적에도 더 커지는 예대금리차

KB 1.54%p로 공시 이래 최대

정부와 여론의 '이자 장사' 지적에도 주요 시중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대금리차는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간 격차로, 예대금리차가 클 수록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가 커진다는 점에서 은행들의 실질적 최대 수익 기반으로 여겨진다.

최근 대부분의 주요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지난 2022년 하반기 공시를 시작한 이래 최대치 또는 최대에 근접한 수준이다.

지난 31일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예대금리차 비교'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예대금리차는 1.41~1.54%포인트(p)로 집계됐다. 올해 초(1.30~1.47%p) 예대금리차보다 저점과 고점이 모두 상승했다.

해당 예대금리차는 햇살론뱅크·햇살론15·안전망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제외하고 계산한 수치다. 이는 저소득·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상품들의 금리가 높은 만큼, 예대금리차가 확대 집계되는 점을 방지

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의 예대금리차가 1.54%p로 가장 컸다. 이어 신한(1.50%p)·NH농협(1.47%p)·하나(1.42%p)·우리(1.41%p) 은행 순으로 조사됐다.

전국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통틀어 전북은행의 예대금리차가 7월 기준 6.03%p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로또복권 (제 1187회)						2등 보너스숫자
당첨번호						
5	13	26	29	37	40	42
등위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2,619,380,012				11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0,787,300				79
3	5개 숫자일치	1,525,961				3,147
4	4개 숫자일치	50,000				152,448
5	3개 숫자일치	5,000				2,557,090

기아, 하반기 집중채용…PBV·글로벌 등 26개 부문

오늘부터 지원서 접수 시작

기아는 “9월 1일부터 2025년 하반기 집중 채용 지원서 접수를 시작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채용 대상은 신입, 경력, 외국인, 장애인으로, 기아가 이들 인재를 동시에 채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용 분야는 기아는 PBV(목적기반모빌리티), ICT(정보통신기술), 글로벌 사업, 국내 사업, 상

품 등 총 26개다. 이 가운데 신입 18개, 경력 17개, 외국인 7개, 장애인 9개 부문에서 채용이 이뤄진다.

신입, 외국인, 장애인은 1일 오후 1시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경력은 15일 오후 1시부터 29일 오후 1시까지 지원서를 접수하면 된다.

직무별 채용 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기아의 글로벌 인재 채용 플랫폼인 ‘기아 탠런트 라운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아는 이번 채용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조직 내 다양성·포용성·유연성을 확대해 ‘고령 중심, 사람 중심 문화’를 실현할 방침이다.

기아 관계자는 “다양한 시·경험을 가진 인재와 더욱 창의적인 기아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 인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LH,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보상 설명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나주시 왕곡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보상 절차,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 이주자 택지 공급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양

공사는 나주 에너지 산단 보상 사업소를 만들고 이번 주민 설명회를 거쳐 토지·물건 세부조사 후 내년 보상 계획 공고와 함께 감정평가를 할 계획이다.

유병용 LH광주전남지역본부장은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이 에너지 신산업 기반을 조성해 미래에너지 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LH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에 123만 9722㎡(38만여평) 규모다. 지난 7월 3일 사업인정 고시를 통해 법적 효력을 얻었다.

산단 내 유치 업종은 에너지 산업, IT 산업, 고부가 식품 산업 등이다. 산단 조성이 완료되면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기대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